

Robert Vannoy, Exodus to Exile, 강의 3A

홍해를 광야로

검토

I. 이집트로부터의 구원, 출애굽기 1-11장

F. 유월절, 출애굽기 12:1-13:16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 숫자 I인 유월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집트로부터의 구원, 출애굽기 1-11장,” F, “유월절, 출애굽기 12:1-13:16.” 지난 세션의 마지막 부분에서 J. Motyer의 강의 노트 "The theology of the Passover"에서 단락의 인용을 살펴보았고 그는 유월절 신학을 다음 다섯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구원, 대속, 구원, 순례.

G. 출애굽과 홍해를 통한 탈출 - 출애굽기 13:17-15:21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점에서 픽업하여 "애굽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통한 탈출 - 출애굽기 13:17-15:21"인 G로 이동할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건널 때까지 진정한 구원이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출되고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그 한 사건이 흥미롭습니다. 당신은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인 사이에 차별이 있었던 전염병 당시에 당신이 가졌던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12장 33절에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이 있는 후 애굽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속히 그 땅을 떠나라고 재촉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을까 두려워”하였다. 사실 31절로 돌아가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라. 당신이 요청한 대로 주님을 경배하러 가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양 떼와 소 떼를 몰고 가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고 재촉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을 돌립니다.

14장 5절에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이 고하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들에 대하여 마음을 돌이켜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고 그들의 봉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초기에 언급한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서비스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통제하고, 그것들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것들을 이용하고 그것들을 잃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노동력을 잃었습니다. 강제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도망하고 있고 바로는 그들을 추격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오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뒤쫓더라. 그들은 겁에 질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하셨나이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였소?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들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어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자 하였으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 모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후에 매우 감사한 답변. 그들은 압제를 끝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이것은 이 시점부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광야 기간 전체에 걸친 일련의 불평 중 첫 번째입니다.

1. 기도와 행동

그러나 모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4장 13절에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굳건히 서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15절과 16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물을 갈라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으로 행진하게 하라.” 그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구원을 구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자 그가 그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 준 물이 갈라지는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잠시 후에 홍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지만 21절을 보면 “그 날 밤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밟고 .”

2. 홍해를 건넌 곳은 어디였습니까?

홍해를 건넌 일에 대해 이것이 정확히 어디에서 발생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었던 수역은 어디였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통과하는 길은 그 길이 더 짧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갔다가 Via Maris 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가나안 남부의 가자 지역으로 바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홍해로 향하는 광야 길로 돌이켜 인도하셨더라

3. Yam Suph – 갈대 바다

거기에서 홍해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을 얻습니다. NIV 번역이 있는 경우 거기에 텍스트 메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참마 그것은 "갈대

바다"입니다. 히브리어는 **참마**,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갈대 바다"입니다. "홍해"라는 번역은 70인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참마**, 그런 다음 라틴어 Vulgate를 통해 영어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용어의 쓰임새를 보면 **참마** 이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바로 여기 외에도 다양한 용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14에서 시나이 반도를 보면 이 두 개의 수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나이 반도의 서쪽에 있는 만으로 오늘날 아카바만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동쪽에 있는 수에즈 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홍해라고 부르는 것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두 팔은 홍해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시나이 반도의 동쪽에 있고 하나는 서쪽에 있습니다. 이제 수에즈만으로 돌아가 봅시다. 민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마** 이 수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그것이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수에즈 만의 끝과 지중해까지 사이에 있는 비터 호수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일련의 호수가 있으며 그 지역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4. 출애굽의 길

출애굽의 경로에 도달하면 이 지도에서 그들이 출발한 곳인 람세스(Ramesses)에서 해안 섬 위로 그리고 해안 고속도로로 내려가는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분 전에 주님께서 13장 17절에서 읽은 그 구절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소위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라고 불리는 이 길을 따라 애굽의 요새들이 있었는데, 그 길로 올라가려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15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애굽의 경로가 남동쪽을 통과하여 이 방향으로 내려간 다음 비터 레이크 중 하나를 가로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마**, 성경 본문의 "홍해"라고 합니다. "홍해"를 읽고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지도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홍해를 건넜는지 궁금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해는 거대한 수역입니다.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어도 홍해 바다는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방식으로 이 호수 지역의 한 지역에서 물을 움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의 길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5. 지명의 어려움

본문에는 여러 지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의 경로를 정확히 지적하기 위해 지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문제는 장소 이름을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은 “그들이 블레셋 땅으로 통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 길로 인도하여 참마.”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떠나 숙곳에 이르니라. 그리고 13:20에서 숙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거기에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므돌 사이 비하히롯 곁에 진을 치게 하라. 그들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쳐야 한다.” 14장 1절과 2절에는 비하히롯, 므돌, 바알스본이라는 세 지명이 나온다. 지리학을 전공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세 곳을 식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출애굽의 경로를 정확히 지적하려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물이 있고 다른 쪽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적하는 차례입니다. 나는 당신이 여기에서 발견한 것이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이켜 이곳에 진을 치라고 이르라 그리고 3절,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혼돈 가운데 두루 행진하는 줄로 생각하고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그들을 추적하리라.

” 보시다시피, 주님은 파라오가 다시 이곳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하기 위해 무대를 마련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의 힘과 그의 팔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집트인들에게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심으로써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을 추격하고 나는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그런 다음 그 다음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가 보았던 바로 그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5:1에 있는 바로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왜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까?”

6.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집트인들을 인도하다

14장 17-18절로 내려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의 온 군대는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그의 기병들.” 그래서 당신은 홍해를 통한 이 구원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앙에서 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훔 사르나 (Nahum Sarna)의 토라 주석, 출애굽기에 관한 책에서 그는 이집트인들을 오도하고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계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은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논평한다. 홍해를 통한 이 구출 이후에 여러분이 애굽에 대해 읽는 다음 번은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구원이었습니다.

14장 말미에 30절과 31절에 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해변에 애굽 사람의 죽은 것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시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큰 구원을 보았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행동이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야훼와 모세를 믿게 했습니다. . NIV는 3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큰 권능을 보았을 때”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문자 그대로 "큰 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손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II. 광야의 이스라엘 - 출애굽기 15:22 ~ 신명기 끝

계속해서 로마 숫자 II, “광야의 이스라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신명기 끝까지 가봅시다. 그것은 많은 자료입니다. 홍해를 건너 후 이스라엘은 시나이를 향하여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 때부터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 모세의 생애가 끝날 무렵 가나안 땅. 이것은 신명기 말기의 40년 기간 동안 애굽에서 구출된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은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15장은 홍해를 통한 위대한 구원에 대한 시적인 요약입니다. 14장에서 그것에 대한 서술적 설명을 볼 수 있고 홍해를 통한 승리를 축하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술 광야로 가던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가. 이 시기의 중요성

위하의 개요에 있는 알림 A는 "이 기간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의견만 있습니다. 4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입니다. 출애굽기보다 앞선 족장시대인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비교하면 215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50장에는 훨씬 더 긴 기간이 있는데, 38장으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68페이지, 215년입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353페이지와 137장을 차지하는 40년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시간이 더 짧지만 대략 5배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료의 상당 부분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제시한 율법의 법적 자료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내러티브보다는 주로 법적 자료입니다. 그 결과 종종 역사적 내러티브가 간과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점은 법적 자료에 있습니다. 레위기를 생각할 때 법적 자료를 생각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의 후반부와 마찬가지로 거의 합법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5장부터 신명기 끝까지 구약의 이 부분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구약 전체를 통틀어 제시의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장들에서 우리가 야훼와 족장들의 후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이에 시내산 언약을 세우는 것에 대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진 것은 모세의 사역을 통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새로 설립된 이 나라는 그들의 신성한 왕이신 야훼에 의해 다스려질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신정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1. 법적 자료에 대한 의견

구약의 이 부분의 많은 부분에 나타나는 법적 자료는 이 위대한 왕이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부과하는 의무인 언약 규정입니다. 그 법적 자료는 그가 이스라엘이 살아야 할 방식을 정의할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지상의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몇 가지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마 율법을 물질적인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고, 그런 종류의 구분에는 도덕법, 민법, 의식법이라는 어떤 가치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분류하는 말을 들으면 도덕법은 보통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십계명에 대한 더 나은 명칭은 기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법과 의식법과 구별되는 도덕법이라고 하면 민법과 의식법에는 도덕적 측면이 없다는 것을 거의 암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나은 레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기본법입니다. 십계명은 민사 및 의식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보다 추상적인 원칙에 구체적인 형태가 부여됩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해 더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법, 십계명, 민법은 가족 문제, 결혼, 재산권, 상속, 노예 취급 방법, 사회 및 정부 조직과 관련된 그런 종류의 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종교 의식, 제사, 어떤 종류의 제사,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 절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제사장의 의무, 각종 그런 종류의 숭배 문제에 대해.

이제 내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 생활을 인도하기 위해 그 법적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규정은 악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연루될 수 있는 많은 잘못을 피할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보고 그들의 타락한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거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의 모든 의무를 온전히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초등교사”라고 말씀합니다. 해당 법적 자료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한 설명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적 자료는 역사적 틀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주로 역사적 틀에 있으며 여기에는 시내 산에서 일어난 일과 그 이후의 광야 방랑이 포함됩니다.

나. 이 시기의 일반적 특징

1. 구속이 최우선

B, “이 시기의 일반적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귀하의 개요에는 4개의 하위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이 제일입니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은 고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에 대한 중심적인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에서 행하신 방식을 돌이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자리를 차지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이스라엘의 고백의 정점이 됩니다.

1. 세 번의 언약 갱신과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하신 일을 다시 언급하는 성경의 몇 군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6장에는 광야시대 말에 언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초실절과 십일조를 드리는 규례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여호와께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라 무엇을? 이것은 고백입니다. “내 아버지는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 거하여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나니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우리에게 고된 노동을 시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비참함과 수고와 압제를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큰 표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이 곳으로 인도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당신은 그 고백의 핵심에서 주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봅니다. 초점은 애굽에서 구출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에는 또 다른 언약 갱신이 있고, 모세의 생애 말기에

신명기에서 언약 갱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생애 말기에 그는 온 이스라엘을 세겔으로 부르고 다시 언약 갱신 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열조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셨느니라. 그는 우리가 여행한 모든 나라에서 우리의 여행 내내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어 그 땅에 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도다

사무엘상 12장에 가면 사사시대 직후 왕정이 수립될 때 길갈에서 사무엘이 행한 또 다른 언약갱신식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2장 6절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제 여기 서 있으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앞에서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증거를 보이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점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출에 맞춰져 있습니다.

비. 선지자의 출애굽과 포로 이후

예를 들어 미가서 6장 3절 이하와 같이 선지자들에게 가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고 주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오신 언약 소송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3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산들아, 주님의 비난을 들어라. 들어라, 땅의 영원한 기초들아, 그가 이스라엘을 고소한다.” 그 혐의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었습니까? 대답 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종살이하던 땅에서 구속하였다. 내가 모세를 보내어 너희와 아론과 미리암을 인도하게 하였느니라 내 백성은 모압 왕 발락이 한 일을 기억한다” 등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물으시며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신실하셨지만 그들은 그분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의 중심에는 이집트로부터의 구출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

느헤미야 9장으로 가십시오. 거기에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한 죄를 고백하고 그 기도 도중에 느헤미야 9:9의 기도가 있습니다. , 당신은 홍해에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파라오와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보내셨습니다.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얼마나 오만하게 대했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자신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세기 후입니다.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쫓는 자들을 큰 물 속으로 돌을 던지듯 깊은 곳으로 던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이 낮의 빛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중심 고백이 됩니다. 그분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 고백에는 이집트라는 물리적 또는 지리적 증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의 영적 상징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출된 것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피가 문 인방과 문설주에 뿌려졌을 때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

백성 못지않게 피의 속죄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출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된 구속의 용어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구원을 시적으로 묘사한 출애굽기 15장으로 돌아가면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리이다.”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지나기까지 주의 팔의 권능으로 저희가 돌 같이 굳게 하리니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지나기까지니이다. 당신은 그것들을 가져와 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집트로부터의 이 구원에 적용되는 그런 종류의 언어를 얻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속되었고 이스라엘이 사셨습니다.

씨. 시편의 출애굽기

시편 74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옛적에 사신 백성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2절에서 이와 같은 메아리를 볼 수 있습니다. ” 시편 77편 7-1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은총을 돌이키셨다고 생각하고 잠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겠느냐?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않을까요? 그의 변함없는 사랑은 영원히 사라졌습니까? 하느님께서 자비를 잊으셨습니까? 그가 분노하여 증酗을 그치셨느냐?”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주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 같은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행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예, 나는 당신의 오래전 기적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행사를 묵상하고 주의 능하신 일을 생각하리이다 오 하나님, 당신의 길은 거룩합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위대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은 민족들 가운데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 다음 15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물이 주를 보고 몸부림쳤나이다... 당신의 화살이 앞뒤로 번쩍였습니다. 당신의 천둥이 회오리바람 속에서 들리고 당신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흔들렸습니다. 네 길은 바다 가운데로, 큰 물 가운데로 네 길은 인도되었으나 네 발자국은 보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다 무슨 얘기야? 20절, “주의 백성을 양 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것이 홍해를 통한 구원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시적 묘사가 있지만 15절에서 구속의 언어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강한 팔로 주의 백성을 구속하셨나이다.” 이 구속은 절망에 빠져 있던 시편 기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잊고 계신다고 생각했고, “나는 미래에 희망을 주는 과거의 주님의 위대하고 능한 행적을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 요점은 구속이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희생에서 그들의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는 구속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본입니다.

2. 약속의 땅이 목표였다

2번 "약속의 땅이 목표였다"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소유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 기록된 대로 믿음의 부족과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정죄를 받았으며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목표였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배워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구속사 운동이라는 큰 맥락에서 볼 때 가나안 진입은 전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새 언약 안에서 생명의 축복에 잠정적으로 들어가는 전형적인 방식이 되고, 그 이상으로 영원한 상태의 안식에서 가장 높은 성취를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안식의 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경험은 항상 안식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부족하여 나머지 가나안 땅은 노동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히브리서 4장 9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처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입니다.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는 구원론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총명한 구원의 그림이며, 종말론적으로 그것은 영원한 왕국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하여 신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움직이는 신학적 주제가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3.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돌보심

계속해서 3장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돌보심”으로 갑시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에 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성막은 결국 건축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 그 위에 강림하셔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처를 삼으십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그 장막 위에 맴돌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들어 올려져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헤어지지 않는 옷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마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읽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그것을 보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마땅히 응해야 할 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4. 법의 일반적 특징

4. “법률의 일반적인 특징.”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낸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신명기 4:34-37을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네 목전에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런 일을 너희에게 보이신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당신을 징계하는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가 땅 위에서 그의 큰 불을 너에게 보이셨고 너는 그 불 속에서 나오는 그의 말을 들었느니라.” 3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을 택하셨고 너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의 앞과 큰 능력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그것을 네게 유업으로 주라.” 그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7절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을 택하셨음이니라” 그것이 그가 당신을 데리고 나온 이유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켰기 때문에 강한 손으로 당신을 인도하여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종살이하던 땅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아버지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이다. 네가 땅을 차지하려는 것은 너의 의로움이나 성실함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좋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이스라엘의 선함이나 이스라엘 고유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의 사랑을 두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분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으로 데려오신 다음 그분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행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법을 주십니다. 선거는 단순한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책임입니다. 그것이 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언약의 의무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이 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논평입니다. 법의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C.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출애굽기 15:22-18:27

1. 인간과 메추라기

계속해서 C,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출애굽기 15:22-18:27"로
가겠습니다. 두 개의 하위 항목이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몇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첫째는 16장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입니다. 그러나 16장 2절에 이르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여호와와 그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곳에서 우리는 고기 냄비 주위에 둘러앉아 원하는 모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이 온 회중을 굶겨 죽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다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4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일인당 풍족히 거두게
하라 내가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내 말을 따르는지 보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
거둔 것을 예비하되 다른 날에 거둔 것의 갑절을 두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니라 바다. 이제 먹임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분이 여호와이신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으므로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누구관대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아침에는
너희가 배부른 모든 떡을 주시는 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생계를 위해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저는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만나”라는 이름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습니까? 14절에 보면 “이슬이 그친 후에 광야 지면에 서리 같은 세한 조각이
보이더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것이 무엇이나?'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이것이 무엇이나?" 거기에 있는 히브리어는 만후. 그들은 말했다 만후.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용 페이지 19쪽, 페이지 중간을 보면 C. F. Keil의 구약성경 주석에 대한 주석이 있습니다. 그는 “남성, 또는 나 대중적인 어법에 속하며 갈대아어와 에티오피아어로 유지되었으므로 의심할 여지 없이 초기 셈어로 간주됩니다.” 이 단어 남성 의문문이다. 그것은 '무엇'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서 이 이상한 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후.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떡을 나의.”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불렀다 남성,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야?”라는 표현부터 그래서 그 번역은 만후 일종의 음역으로 만나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라는 뜻입니다.

이 장의 일부 기능에 대한 몇 가지 다른 간단한 설명입니다. 하루 분량이 한 번에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밤새 유지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을 제외하고는 망할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두 배로 얻어 일곱째 날에도 배부르게 하여 상하지 않게 하였던라 16장 16절을 보십시오. 네 천막에 있는 사람마다 한 오멜씩 가져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어떤 것은 많이, 어떤 것은 적게 모았다. 오멜로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랐다. 각자 필요한 만큼 모았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이것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하나 그들이 그것의 일부를 아침까지 두었더니 구더기가 가득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매일 아침 모두가 필요한 만큼 모였고, 태양이 뜨거워지면 녹아 없어졌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두 배인 두 오멜을 거두었습니다.” 23절, “내일은 쉬는 날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러니 굶고 싶은 것은 굶고 췌이고 싶은 것은 췌이세요. 남은 것은 무엇이든 저장하고 아침까지 보관하십시오. 그래서 아침까지 두었더니 냄새도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하루의 공급. 이제 이것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고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이전입니다.

이것은 시내산 이전입니다. 따라서 시내산 이전에는 안식일 준수가 있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의 어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창조 조례였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과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제시되기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데도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모세는 이를 반성하면서 “너를 낮추시어 너를 주리게 하시고 너와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셨다”고 말합니다.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 하노라.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존하도록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암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의식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그분은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나를 자신의 한 유형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느니라.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있으니 사람이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리고 그 장 전체가 그리스도 자신의 모형인 만나에 호소합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38절에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 흥미로운 챕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끝에서 주님은 다가울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나 한 항아리를 보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을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된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지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정착한 후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소산을 먹은 후에는 더 이상 만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부터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방황하는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번에 이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2. 르비딤에서: 출애굽기 17-18장 - 아말렉 사람들과 이드로의 조언

1. 아말렉

쉬기 전에 한 번 더 감시다. 2는 "르비딤에서", 17장과 18장입니다. 세 가지 하위 요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1-7에서 물이 다시 제공되고, 17:8-16에서 아말렉에 대한 승리, 그리고 17:8-16에서 이드로의 조언 18장. 첫째, 물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이 물에 대해 불평했을 때 주님은 다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처음 7절에 있고 나는 그것을 건너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째 요점인 8-16절에 대해 몇 가지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패배했습니다. 8절에 “아말렉 사람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치고”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르비딤에서 일어났습니다. 17:1에서 그들은 물이 없는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고 모세는 9절 끝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대로 아말렉 사람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밑에 두고 모세는 그 위에 앉으니라 아론과 훌은 그의 손을 이편에서 저편에서 받들어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이 흔들리지 않게 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칼로 아말렉 군대를 이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기억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듣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들렸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에돔과 관련된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공격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공격하자 여호수아는 군대를 편성하여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전쟁까지 나서서라도 악에 대한 강제적 저항이 정당화되는 시대와 상황이 있음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용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요구됩니다. 물론 그것은 정당한 전쟁 문제와 평화주의 문제에 대해 기독교 공동체에서 큰 문제를 제기합니다. 전쟁에 대해 긴 토론을 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정당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역사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아말렉의 공격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 즉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의 지속적인 투쟁의 또 다른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의 공격은 실제로 성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야훼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시내산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을 공격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공격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는 데 매우 실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목적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모세는 저항했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이에 대해 회고하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 사람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사방의 모든 대적에게서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고, 물론 그것이 이 구절의 마지막 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와 정착하고 왕권이 확립되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하라고 하신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사울은 나가지만 하지 않습니다. 양 떼와 소 떼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남겨 두니라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거부하였으니 나도 너를 거부한다.”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후반인 페르시아 시대에 에스더와 그녀의 숙부 모르드개의 원수는 아각 사람 헤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에스더 3:1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각 사람 하만이 아말렉 왕가의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죽였지만 사울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신은 이스라엘 역사의 그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이 아말렉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좌절시키려는 시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흐름 속에 이 작은 서사를 넣는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고 있는 것과 그가 하는 일에 대해 마지막으로 언급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의 손이 내려오면 집니다. 확실히 모세의

손이 들리는 것과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사이에는 단순한 물리적 연결이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악에 대항하고 악에 맞서 싸울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징입니다. 주님과 주님 홀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그러나 승리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비. 이드로의 조언

이 섹션의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Jethro의 조언"이라고 레이블을 붙인 18장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었고 이스라엘이 길을 가다가 이드로를 만났는데 7절에 “모세가 장인을 만나러 나가서 절하고 입맞추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일을 그에게 고하매 .” 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신 모든 선한 일을 듣고 기뻐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11절에서 흥미로운 진술을 합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일을 관찰하고 그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Jethro의 조언을 언급합니다. 13절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의 재판관으로 앉으니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주위에 서 있더라. 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백성에게 행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당신은 홀로 재판관으로 앉아 계시는데 이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 주위에 서 있사옵나이까 모세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내게로 오느니라 그들이 분쟁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면 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결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 주지요.” 시나이. 나는 나중에 다른 연결에서 이것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싶지만 나는 당신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당신과 당신에게 오는 이 사람들은 당신 자신만 지치게 할 것입니다. 그 일은 당신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 말을

들으시면 조언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자가 되어 그들의 분쟁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치라.”

여기 시나이 이전 법령과 법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 있습니다. “살아갈 길과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그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하고 부정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택하여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라 그들로 하여금 항상 백성의 재판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일을 주께 가져오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경우. 그래야 짐이 가벼워집니다.” 24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사건을 모세에게 가져왔지만 모세는 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위해 모든 분쟁을 판결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은 것은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율례와 율법이 있었고 15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시내 산 이전부터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더 나아가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수록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

Olivia M. Gray 작성
레드 힐데브란트 편집
Katie Ells의 최종 편집
Ted Hildebrandt의 재연설

